

두 분의 國父, 이승만 박사와 김구선생

- The Founding Fathers of R.O.K -

○ 머리말

광복 70주년에 공개된 소위 [아베담화]에도 진정성 있는 ‘침략과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죄’는 물론 없었거니와, 오히려 그 반대로 ‘앞으로 일본의 국가이익이라면, 한국쯤이야 어느 때든지 침략하고 지배할 수 있고 국제적으로도 인정되는 사실’이라고 하는 오만불손 하고도 황당한 야망만 보여, 제국주의와 군국주의지향 일본 정치지도자의 음흉한 의지와 이를 따르는 다수 일본국민들의 속내가 재확인 되었다. 이로서 그동안 우리 민족을 격분시켜 왔던 소위 [구보다(1953.3차 한·일회담대표)망언] - “36년간의 일본통치는 한국에 유익했고, 한국재산 85%는 남기고 간 일본재산임으로 반환해야하고, 거기에 그동안 사용대가도 추가해 배상하라”- 으로 시작된, 한국의 [진정성 있는 사과요구]가, 적어도 현 아베정권이나 자유당에서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부터 對日국가군사·외교·정치안보상으로는, 70년 이전 광복운동시대로 되돌아가 일본을 主敵 다음의 [暫定敵國]으로 상대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다.

이에 특히 광복 70주년·건국 67주년을 맞이하여, 우리는 새삼 70년 전에 전개되었던 광복전쟁과, 그 후 연이어 계속되었던 대한민국 건국투쟁을 위해 헌신했던 모든 선구자들·지도자들과, 그리고 그와 함께 특히 임정의 대표 김구선생과 대한민국 초대대통령 이승만 박사 등의 그 위대한 대일항쟁역사 업적들을 찾아 연구함으로써, 엄정했던 그 시대 역사교훈에서 오늘에 필요한 대일전략방책(사상)과 극일정신을 재발견하고 터득할 수 있을 것으로 믿으며, 이를 오늘의 일본을 이길 수 있는 부국강병책으로 승화시켜 나가야겠다.

○ 3·1광복만세운동 이전

國父로 추앙되어야 할 이승만은 20세(1894)에 배재학당에 입학하여, 개신교를 통해 민주주의와 민족의 독립정신을 배웠고, 이 개신교를 구국의 방편으로 삼아 서재필과 함께 국민계몽과 독립활동을 전개하였다. 24세(1896) 때, 잘 알려진 [독립협회]·[만민공동회]를 조직하고, 언론과 간행물 그리고 직접 대중연설 등을 통해 대한제국의 대개혁운동을 전개했다. 이 때문에 ‘정

부전복협의'로 사형수가 되어 투옥되었는데, 기간 중에 한국의 첫 민주주의 교본이라 할 수 있는 [독립정신]을 저술하고 전파하였다.

러·일전쟁으로 대한제국이 일본에 강제합방위기에 놓이자 이승만은 하루아침에 사형수로부터 고종의 특사가 되었고, 미국에 가서는 천신만고 끝에 루즈벨트 대통령을 만났다. 그런데 그와 우리나라는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침략해 오는 적에게 한방의 주먹도 날리지 못하는 나라를 우린들 어떻게 도울 수 있겠는가”라는 뼈아픈 충고를 받았다. 이를 계기로 그는 준엄한 ‘국제정치학’에 관심을 갖게 되어 미국정치1번지인 워싱턴 DC에 남아, 워싱턴대학교(문학사)를 거쳐 하버드대학원(문학석사) 그리고 프린스턴대학에서 국제정치학박사학위를 취득하였는데, 당시 한국인으로는 물론 미국인에게도 특출한 경우였다.

그 즉시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해 버린 조국에 황급히 돌아와(1910), 총독당국을 비판하는 한편 [황성기독교청년회 즉 YMCA(전신)]를 창립하여 전국적 구국청년종교인들을 배양하면서 전국을 순회, 국민들에게 자유민주·자주독립사상을 계몽하였다. 38세(1912)때 일제가 조작한 소위[105인사건]에 연루되어 체포되려하자 이를 피하여 미국으로 망명하였다. 때마침 같은 감옥살이를 했던 독립운동동지로, 미 본토 [네브라스카 사관학교]를 나오고 하와이에 정착하여 소년병학교 - [대조선국민군단]으로 발전 - 를 운영하면서 범 미국교포의 [대한인국민회]를 주도하고 있던 박용만 동지의 초청으로, 이승만 박사는 하와이에 인연을 맺고 정착하였다.

그리하여 1919년 3·1만세운동까지는 주로 태평양중심에서 국내외동포들과 미국국민들과 언론을 상대로 현지 연설과 언론논설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한국의 자주독립국임과 광복의 당위성을 역설하였다. 당시 미국의 윌슨대통령(이승만의 대학교수)이, 제1차제국주의세계전쟁을 종식시키고,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국제연맹]을 결성하면서 [평화 14개조항]을 내세웠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우리광복운동과 직결된 [민족자결주의]에 호응하여, 이승만은 이를 국내외 동포들에게 널리 공포하면서 3.1광복운동을 선동하여 일으켰으며, 파리강화회의(본인은 비자불허로 김규식 파견, 서한전달)·세계약소민족대표회의에 대표로 참석하는 등, 이미 국내외에 가장 널리 알려진 선구지도자답게 다방면으로 광복운동에 헌신하며 매진하고 있었다.

한편 또 한분의 국부로 추대되어야 할 김구선생은, 이승만 박사보다 단 한 살 아래로 같은 고향인 황해도 출신으로서, 한학을 자습하여 동리훈장도 하면서 동학에 입도하였는데, 리더십이 출중하여 18세가 되자 수백명을 거느

리는 청년접주(1893)가 되었다. 다음해 동학란이 발생하자, 황해도 동학군의 선봉장이 되어 해주성을 습격하였으나 패하고 부대는 흩어졌다. 이후 안중근 의사의 부친에게 신세를 지며 청국의 ‘성리학적 대의명분’과 ‘위정척사의 도’를 터득하고 청국행을 결심하였다.

제1차청국행에서 잘못된 관군을 정의감으로 습격하다가 실패하고, 다음해 제2차시도 때는 [삼남 의병봉기]소식을 듣고 귀향하는 도중에, ‘**민비시해왜놈(?)**’을 만나 **살해하였다**가 체포되어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다. 그때 세계역사와 세계지리 등을 보고 신학문에 눈을 떴다. 그러다가 탈옥하여 한때 마곡사승려가 되었다가 다시 환속하여 황해도 각지에 학교를 세우고, 개신교에 입도하여 평양에도 진출하는 등 국민계몽운동에 열중하였다. 1905년 서울로 진출하여 대한문 앞에서 읍소도하고, 가두연설도 하면서 을사조약무효·국권회복운동]을 전개하였다.

1907년에는 국권회복운동의 비밀결사조직인 [신민회]에 가담하여 황해도 대표로 활동하던 중, 1911년 서울에서 열린 [신민회 회의]에 참석했다가 체포되어 수감되었고, 당시 이승만도 연루되어 망명했던 소위 ‘한국 독립운동꾼 소탕작전’이었던 [105인사건]에 연루되어 서대문형무소로 이감후 1915년에 가출소하였다.

1918년에 중국으로 탈출하기 위해, 중국 상해에서 여운형이 (레닌으로부터 직접자금을 받아) 운영하는 [신한청년당]에 가입하여, 3.1운동직후인 1919년4월에 천신만고 끝에 상해로 망명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이 당시 막 성립 중인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의 의원이 되었고 곧 성립된 [통합 대한민국(상해)임시정부]에서 내무장관 안창호선생 추천으로 경무국장이 되어, 정보·재판·질서유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때 국제공산주의 자금지원을 받는 국무총리 이동휘의 [공산주의혁명동참제의]를 받고, 제3국공산당의 지시를 받는다는 이유로 거절하였다.

이제 이정도에서도 우리는 이승만 박사와 김구선생의 청년시절부터의 특출했던 의기와 희생심, 그리고 학문성과 애국심,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연유되는 국민지도자적 리더십을 잘 알 수가 있게 되었을 것이다.

○. 대한민국임시정부(임정) 초창기 시절

1919년3월1일을 기하여 교포세계만방에서 [3.1광복만세운동]이 시작되었는데, 그와 함께 이 전쟁(운동)을 주도할 지역별 자체 [임시정부]도 구성되었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중국지역의 [상해임시정부-의원내각제로 국무총리 이승만·내무 안창호·경무국장 김구], 만주와 연해주지역의 [대한국

민의회정부-대통령에 손병희·국무총리에 이승만.....], 그리고 본국에서 [한성정부-집정관총재에 이승만·국무총리총재에 이동휘.....] 가 조직되었다.

그리하여 9월에는, 이들 3개지역정부가 통합되어 [대한민국상해임시정부(임정)] 가 수립되었고 초대대통령으로는 당시 세계만방의 교포와 전 국민이 추앙하는 독립광복운동지도자 이승만 박사가 추대(11월)되었다. 이승만은 일직부터 국내 [한성정부]에서 집정관총재(대통령)로 추대(1919.4)되자 워싱턴에 자리 잡고, 8월에는 [한국위원회]로 활동하다가, 9월 통합임정대통령이 되자, 필라델피아에서 활동 중인 서재필의 [외교통신부-3.1직후 설치]와 [김규식의 주 파리위원회]를 통합하여, [구미위원회-위원장 김규식]로 개편하고 미주 전체에 19개 지부를 두고 적극적인 외교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이승만대통령 자신은 1920년 조기에 상해로 와서 정식으로 취임하고, 특히 국내와 연계하며 [안창호의 준비론]과 [이승만 자신의 외교론] 그리고 [이동휘·박용만 등의 무장독립론]을 [광복구심전략]으로 하고, 주로 미국교포로부터 조달된 자금으로 광복전쟁을 총체적으로 지휘·지도하였다. 그래서 세계열강에 호소하여 임정의 국제적승인 획득과 국제연맹가입을 위해 민족의 단결된 역량을 다 하였다.

그러나 파리강화조약(베르사유체제)에서는, 더욱 거세어진 일제(日帝)를 포함한 제국주의열강들의 야욕에 반하여 미국을 비롯한 반제국주의세력들이 약화되고, 국내는 그동안 일제의 극심한 탄압으로 광복전쟁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기까지 하였다. 그러자 이에 영향을 받은 임정 또한 노소, 강은, 좌우의 노선투쟁으로 약화되어갔다. 이에 이승만은 이미 경험한 바를 살려 차라리 국제정치무대에 직접 등단하여 [임정과 민족생존의 국제전략]을 펼치는 것이 중요함을 더욱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승만대통령은 임정의 수반을 관내(중국대륙)나 만주 그리고 내국환경에 기반을 둔 더 유능한 동지에게 맡기고 본인은 어디까지나 임정을 받들어 그 이름으로 국제외교활동을 하려고 결심하고 21년에 미국으로 돌아갔다. 그리하여 미국에 돌아간 즉시 서재필박사와 함께 전국을 순회하며 강연하고, 미국의회에 한국안건을 상정 건의하고, 또 세계정치의 주요무대 워싱턴에서 미국무성에 직접 청원을 한다던가, 미국언론은 물론 워싱턴 주재 외국언론사 등에 기사·정보제공, 그리고 한편으로는 월슨·하딩 대통령 등 미국조야의 동창·친구 등에게 인간적 접근 등도 불사하며 전방위외교활동을 전개하였다.

이승만은 1921(~2)년에 [워싱턴 군축회의] - 한국인에게는 기대 가능한 [태평양회의]로 알려졌다 - 에 다시 큰 기대를 걸고 집중적으로 외교활동을 전개했으나 이는 '식민지해방회의가 아닌 제국주의 열국회의'였을 뿐으로, 민

주주의 미국을 제치고 제국주의가 여전히 득세함으로서, 임정전략의 한 축인 이승만의 [외교론]이 한 때 크게 상처를 입기도 하였다.

그래도 이승만은 ‘미국국민들의 관용성과 공평성 그리고 정의를 향한 강한 이상주의’를 믿고 싶었고, 더불어 당시 막 세계열강에 등단하여 기세 좋게 성장해가는 미국, 미래에 세계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강국이 확실함을 그는 또한 믿었다. 1922년 다시 하와이를 근거지로 미본토를 순회하며 ‘일제의 전쟁도전위협성과 한국국민의 노예적 입장’에 대하여 순회강연과 선전 그리고 국내외 외교전에 열중하였다.

한편 임정수립직후 지원단체로 30여개가 창립되었는데, 이승만박사가 미국 가고, 광복운동자금도 고갈 되 가자 한때 이승만대통령을 승계절차상 탄핵하면서 외교론이 힘을 잃게 되고, 이동휘의 고려공산당이 자체 종파분쟁으로 약화되자 안창호의 [준비론]이 임정의 중심방략이 되었으나, 와중에 갈등과 내분으로 임정이 약화되고 있었다. 이럴 때인 1922년에 백범 김구선생이 수석총장인 내무총장에 임명되어 안창호를 도와 임정을 ‘개조하고 고수’하려는 [개조파] 또는 [고수파]로 등장하였다.

한편 교포사회에는 또 하나의 광복운동단체로, 황포군관학교를 나온 김원봉이 지도하는 [의열단]이 나타나 광복운동을 명분으로 무력을 사용하여 주목을 받으면서 기존 외교론자와 준비론자들을 적대시하며 사회주의운동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들이 국공합작정부 國府(국민당정부)의 지원 - 국부좌파요인이 된 김원봉의 황포군관학교동기들 - 을 받아 공산측 국부군소속으로 활동하였는데, 그 주류가 점차 중국공산군이 되어 갔다. 그러자 김구선생도 [한국 勞兵會]를 조직하여 이에 맞서려했으나 여의치 않았다.

그동안 임정은 내각책임제인 국무령제(國務領制)로 바뀌고 1926년에 고수파인 김구가 국무령이 되면서 겨우 임정중단의 대 시련기를 모면하게 되었다. 이때부터 임정은 20여 년간의 [임정 김구시대]가 시작되었는데, 그러나 그의 앞날에는 당시 우리민족과 국가가 당면했던 고난과 가난, 고립과 설움의 절벽시대가 진치고 있었다.

○ 일제의 중국대륙침략시기 광복전쟁지도

드디어 이승만 박사가 미국 조야에 예고했던 일제의 중국대륙침략이 시작되자 그는 당시 국제정치무대였던 스위스 제네바로 가서 한국국권회복을 위한 국제외교활동을 전개하였고, 그길로 소련에 가서 [동아시아연맹]을 논의하려했으나 일제의 여행방해와 소련의 배반(독·소불가침조약)으로 뜻을 이

루지 못하였다. 미국으로 돌아와 일제의 침략근성과 멀지 않아 태평양전쟁을 도발할 것이라고 미국조약에 예견하여 경고하였는데, 특히 미국언론들이 공감하였다. 동시에 이때부터 소련의 배반성을 명심하고 이후 평생을 두고 소련과의 외교를 경계하였다.

그러나 1930년대 전반적으로, ‘일본세력을 기반(番犬)으로 아시아태평양의 평화를 도모하겠다’ - 바로 오늘날과도 같이 - 는 서양인들의 착각 전략사상 때문에 이승만 박사는 가혹한 시련을 면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실을 책; [일본 군국주의 실상-Japan Inside Out]으로 엮어 일제의 태평양전쟁도발 전에 특히 미국조약에 배포하였다. 그는 그 책에서 “일본의 아시아 침략은 자유세계전체에 대한 위협이기에 특히 미국은, 경제적·도덕적·군사적 총력으로 일본의 야망을 조기에 저지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은) 일본과 곧 충돌하게 된다”고 역설하였다. 41년 6월에는 임정이 이승만 박사를 [주미외교위원장]으로 정식으로 임명 - 사실상 현상을 인준 - 하고 외교과제로 임정승인과 군사지원문제를 요청하였다.

한편 1920년대 후반에 광복유지들이 각자의 전략사상에 따라 임정과 상해를 떠나고 있을 때 국무령 김구선생은 특히 최악의 재정형편이 된 임정을 그래도 고수하며 정세를 판단하고 있었다. 1931년에 일본이 소위 [만보산사건]이라는 음모전략으로 중국과 한민족을 이간시키고, 그 즉시 본격적으로 만주를 점령하였는데, 이로서 그동안의 한·중우호가 위협을 받고, 그동안 희망이었던 만주광복군의 군사세력조차 잃게 됨으로서, 국면전환을 위한 어떤 가지적인 돌파전술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국무령 김구는 임정의 정식 특수임무부대(특무대)인 [한인애국단]을 창설하였다. 그래서 1932년도에 감행된 [이봉창의 일왕폭사미수사건]등을 비롯하여, 국가적 권위의 특수전을 시행하였는데, 특히 [윤봉길의사의 상해홍구공원폭탄습격사건]은 그 동안의 한·중관계를 완전히 복원시켜주었고, 나아가 國府는 임정에 대해 확실한 우방으로 인식을 새롭게 하였고, 김구선생을 한국광복운동의 중심인물로 인정하게 하였다. 그러나 반면에 이러한 사건들로 인해 열이 오른 일본군의 검거선풍으로 [大公主義] 즉 ‘그 때를 위한 [준비]’를 주장하던 안창호는 피체되어 본국송환에서 순국하였다.

일반교포단체들과 특히 김원봉의 [의열단]은 바로 국부(國府-국민당정부)를 따라 남경으로 가서 국부정부의 지원아래 1935년에 [반임정·반김구세력]을 결집하여 [임정해체]를 요구하였다. 이렇게 사회주의세력들에게도 밀리면서 국무령 김구와 임정요원들은 일경에도 쫓겨 한때 상해내 열강국의 조계에

피난도 하였으나 버티기 어려워 부득이 [임정의 무거운 간판]을 몸소 둘러메고 일단 왜군의 발이 닿지 않는 가흥으로 임시 피난하였다가 안전을 확보한 뒤 국부의 임시수도 남경으로 일단 피난해 갔다.

1937년에 일본이 중국대륙을 본격적으로 침략하자, 임정당국과 교포들은 심기일전 제 당과 통합으로, 무력전쟁을 포함하는 총력전을 전개하기로 결심하였다. 때마침 중국도 제2차국공합작을 통해 장개석 주도로 본격적인 항일전쟁을 개시하면서 임정에게도 참전을 권유하였다. 그래서 국무령 김구는 당면 임정전략정책(방략)을 ‘[광복군]을 조직하여 항일전면무력전쟁 동시 외교전쟁(미국 이승만 박사) 우선’으로 전환하였다.

그런데 왜군이 南京을 침공하자 또 다시 [國府]가 항일지구전을 실시하면서 전시수도를 내륙오지인 重京으로 천도해 갔다. 그러자 좌파 김원봉과 [민족혁명당]은 소속가치에 따라 즉시 국부를 따라 중경으로 가서 국부가 원하는바 [조선의용군] - 국부가 붙인 명칭이요 원하는 입장의 명칭 - 을 편성하여 국부군에 소속시켜 항일정규전과 비정규전을 실시하였다. 그런데 이들 중 대부분의 진짜 공산주의자들은 역시 [조선의용군]이라는 이름으로, 지휘관 金武亭 - 6.25전쟁시 북한 괴뢰군을 지휘하여 남침하면서 그 명성을 얻었으나 전후에 김일성에 의해 연안파로 숙청되었다 - 과 함께 華北지역에서 중공군에 소속되어 전투요원으로 활동하였다.

한편 국무령 김구와 임정(간판과 요원 그리고 식구들)은 또 다시 가흥을 떠나, 비록 國府의 지원과 엄호(추력과 안내원들)를 받긴 하였으나, →장사(37.11) → 광주(39.1) → 중경(39.4)으로 2년 반여의 장기간에 장장 5000킬로미터 즉 부산-서울간의10배가 넘는 피난길을 이국땅 오지에서 방랑한 뒤에 비로소 기강에 안착하였고, 김구와 필수요원만은 별도로 중경을 왕복하며 활동을 계속하였다.

김구주석(40.10)은 이때 민족진영통합정당인 [한국독립당(한독당)]을 창당하고 임정의 주체세력이 되면서, 국부당국과 상의하여 - 창설후 국부군에 예속조건부 지원승인 - 일단은 [광복군]을 창설(40.8)하였는데, 사령부를 서안으로 이동하여 3년내 연합군과 연합작전 가능한 3개사단규모로 증강하려하였다. 계획대로 집행되지 못한채 - 42년에 450명규모 - 국부군에 예속되어 전선에서 활동하였으나, 김구주석과 광복군당국은 [한국광복군공약·서약문]을 통해 자주국방군으로의 발전을 추구하였다.

○ 일제의 태평양전쟁도발시기 최종광복전쟁단계 지도

자신이 예언한 것처럼, 1941년 12월 8일에 일제의 하와이침공사태가 발

생하자 이승만 박사는 임정에, ‘일본을 패망시키려는 미국을 한국이 지원하겠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대일선전포고’를 하도록 요청했다. 그리고 그 성명서와 포고문을 받아 미 국무성에 전달하였는데 당시는 유감스럽게도 미국당국에서 묵살되었다.

사실 진주만침공사태 이전에는 일본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는 연합국이 된 소련을 또한 자극하지 않기 위해 미 국무성당국(특히 실무자들)은 한국문제(승인과 연합국참전문제)를 고의로 소홀히 다루려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승만은 끈질기게 임정의 승인과 한국민의 일본인과의 차별 그리고 한국의 참전과 역할인정 등에 대한 노력(당국자와의 직접 대화로, 친분명사들에 대한 설득으로, 선전매체에 인터뷰로 또 신문기고로 그리고 책으로 등등)을 하고 또 노력하였다.

그리하여 법무장관에게 호소한바 있는 ‘적성국가 외국인에 가해진 규제의 특별면제대상’이 되었다.(1942.2) 즉, 일본인과는 달리 우리 한인교포는 전시 격리수용을 면하였다. 그런데 이는 곧 ‘해방될 한국의 자주민족존재를 사실상 분명하고 확실하게 인정하는 것’이었음으로 이승만과 동지들은 크게 고무되었다. 다른 한편으로, 전쟁말기에 이르러서는 이승만 박사도 무력광복론에 동조하여, 당시 Donovan장군이 지휘하는 OSS(Office of Strategic Service ; 전략첩보정찰부대)에 참전을 계획하였다.

우선 유학생과 교포청년으로 자유한인부대(Free Korean Legion)를 조직하여 미군부대에 파견하고, 차츰 참전역량을 증가시켜서, 그들이 중국에서 광복군을 선도(교육훈련 등)하여 미군과 항일연합작전을 수행하고, 그리하여 종래는 한반도로 진격(또는 진주)해 간다는 계획이었다. 이를 일컬어 이승만은 ‘한인참전계획’(Korean Project)이라 하였는데 이는 국무령 김구의 참전계획과 궁합이 맞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100여명의 지원자들이 OSS 훈련을 받아 종전까지 참전을 대기하였으나) 실제로는 1943년 봄부터 장기영(후에 한국일보 창간인)을 비롯한 일부 용사들이 미얀마(버마)전선 등에 배치되어 미군과의 연합작전에 참가한바 있다. 그러나 그 사실자체만으로도 미국당국과 국민들에게 한국국민이 일본과는 다른 연합국가편임을 확인시켜주는 증거로 작용하였다.

그리고 1942년 3월에는 김구주석으로부터 ‘국부의 사실상의 임정승인 사실과 한국재건 연설문’을 주미외교위원부장의 이름으로 전달받고 이를 즉시 재미한족연합회에 보냄과 동시에 승인해 준 국부당국(입법원장)에 감사서한도 보냈다. 또한 이승만 외교부장은 이 사실을 태평양전쟁 1주년이 되는 1942년 12월 7일에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에게 편지하고, 이어서 중국정부(당시 胡외무차관을 통해)와 미 국무장관(당시는 헐)에게는 임정의 당면목표를 부가설명하면서 자신의 전략정책을 명백하게 강조하는 서한도 보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임정의 목표 ; “광복군을 무장하고, 한국내외 대일정보수집 및 파괴활동을 통하여 연합국을 적극 지원하는 것이며, 광복후에는 국내 일본인은 추방하고 주일한국거류민은 환국함과 동시 피탈 문화제를 회수한다. 일제에 전쟁피해 보상 받고,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건국하여 지역평화보루로 지향한다, 그리고 대마도는 반환받을 것이며, 중국과 미국과는 친선하고 물질 지원이 요긴하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세계문명에 기여한 자랑스러운 민족으로 소망하는 바는 대서양현장을 준수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쟁취하려는 것” 이라고.

한편 그동안 미국에게 소련의 비중이 높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불길한 징조로 보였다. 그래서 위의 서한을 송부한 이후 불과 수주일 뒤에 이승만 외교부장은 쉴 사이 없이 월 국무장관에게 서신을 보내 ‘한국에 대한 소련의 야망’을 경고하면서, ‘지금 미국이 대한민국 임정을 승인해 주지 않으면 전후 한반도에 공산정권이 수립되는 불가피한 정세가 초래될지도 모른다.’고 주장하였다.

그래서 1945년 5월에 개최된 [국제연합결성대회]에 [통합한국위원회] 명의로 참가하려하였으나 1919베르사유회의 때와 같이 또 거절당했다. 이렇게 실망 중에 [알타 밀약설] - 소련의 한반도공산화 허용 - 을 듣고 미국조야에 [밀약]이란 사실을, 수단·방법을 다하여 폭로하고 비판하면서 전후 한국의 광복입장을 널리 홍보하였으나 영국과 불란서를 비롯한 제국주의열강은 물론 미국도 들어주지를 않았다. 그 직후 國府외교 송자문이 친공좌파인사들(김규식·김원봉·조소앙·미국내 한길수등)과 [합작정부]구성을 종용하였으나 이승만 박사와 김구선생은 그 의도를 간파하고 단호히 거절하였다.

한편 김구주석은 벌서부터 전후를 대비하여 [대한민국건국강령]을 공포(41.11)하고, 건국과정을 3단계로 계획하고 임정이 바로 수권기관임을 천명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국내의 광복유지 장건상과 그동안 좌편향 했던 김원봉(1945년귀국, 48년에 월북(행)하여 고위직 받고 배반함) 및 중공군에 합류 않은 그의 잔류 조선의용대, 그리고 역시 좌경 김규식 등이 합편하여 마지막 광복운동단계를 김구주석 중심으로 전개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國府는 임정과 한국독립을 지지한다고 공식으로 선언(42.3)함으로써 임정이 인정된 것으로 믿게 되었다. 1943년에 광복군(이청천 총사령)은 심리전 공작대를 편성하여 영국군의 동남아전구에 파견함으로써 이승만 박사의 OSS파견대와 함께 연합군과 합동작전(임팔전선)에 참여하였는데, 본격적인 연합작전을 인정받기직전에 종전이 되고 말았다.

43년에 국제적으로 “한국의 신탁통치” 소문이 나자 이승만 외교부장과 김

구주석은 모두가 일제히 반대하며 외교노력을 다하는 가운데 [카이로 선언]이 발표(43.11)되었는데, 거기에는 “적당한 시기에(적당한 절차로) 한국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 으로 되어 있어서, 이에 예민한 우리에게도 독립보장은 물론 감사하지만, 그래도 즉각적인 독립국가라야지 ‘일정기간 신탁통치’는 허용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이승만 외교부장은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에게, 김구주석은 장개석에게 이 우려를 불식해 주도록 청원하는 한편 새삼 민족적 자각을 다짐하였다. 연합군의 승승장구에 따라 김구주석은 1944년 3월에 국부로부터 광복군지휘권을 환수받고 국내진공작전계획을 수립하여 연합군과 협조를 시작하였다.

1944년 4월 김구주석은 ‘공산주의자나 정치적인 배경불문, 국내외집단이 나 개별세력과도 연합’을 시도하였다. 그래서 중공(연안)의 김두봉과 연락하여, “10월에 압록강 넘어 국내진공시 협력가능”하다는 응답받고 45년 4월에는 특사를 통해 곧 [전세계한인독립운동자대표대회]에 대표참석도 수락함으로써 고무되는데 다, 때마침 김일성측이 보낸(추정컨대) 사자를 통해 연해주 한인공산무장세력과 김일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고, 국부와 소련의 협력으로 이들과 협력이 가능할 것이라고 夢想하였고, 45년에는 김일성에게 연락원을 파견도 하였다. 그러나 조기종전으로 직접연락에 실패하였으나 그래도 그는 그 사건으로 당시 김두봉과 김일성 즉 광복공간의 신 공산주의세력과 국내진공작전협력가능성은 물론, 광복후에도 그들과 협력통일가능성에 대해 夢想할 수가 있었던 것으로 필자는 추정한다.

○ 광복에서 대한민국건국 선포시기

1945년 8.15를 맞이하여 이승만외교부장과 김구주석 등 임정요원들은 광복의 기쁨과 동시에 자력광복을 못한 회한에 잠겼었다. 이제 이러한 광복정국을 맞이하여, 임정은 14개항의 당면정책을 정하였는데, 일단 현 체제로 환국하여, 과도정권을 조직하고, 헌법제정과 그 절차에 따라 대한민국을 수립하고 임정의 정통성을 승계시킨다고 규정하였다.

미국당국과 國府의 지원(중경에서 상해까지는 국부지원, 상해에서 귀국은 미군지원)으로 11월부터 임정요원들이, 개인자격 - 조기 귀국을 위해 조건승락 - 으로 환국하였고, 잔류요원들은 후속조치를 취한 뒤에 46년 5월에 역시 개인자격으로 개별적으로 귀환하였는데, 그런데 다만 10만여의 광복군(종전후 일제징용군에서 편입된 요원 등)의 이후 사정과 중국내 4백만 교포거류민들의 그후 사정이 불명한 상태로 지금까지 지내왔음이 대한민국의 부끄러움으로 남아있다.

한편 이승만 박사는, 소련주도로 공산화되기 전에 임정전통과 국민의 지지로, 바라고 또 바라던 [자유·자주·독립대한민주공화국]을 건설하려는 일념으로 환국을 서둘렀다. 이에 대해 미국은 소련과 중공의 야욕을 간파 못한채 전후질서동반자(反帝國主義戰線)의 필요성에 따라 김구와 이승만을 방해세력으로 간주하여 기피인물로 단정하고 그들의 국가/단체권위적 귀국을 반대하고 다만 개인자격입국만 허용하였던 것이다.

이승만 박사는, 미국무부의 소원정책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극동과 한반도 현지 군정당국의 필요성에 의해, 그들의 편의제공으로, 10월 16일에 국가직함 없는 개인자격으로 일단 귀국할 수 있었다. 그런데 귀국하여 일주일도 안되, 여운형·박헌영 등 국내좌파세력을 비롯하여 국내외민족진영세력들이 모두 하나같이 이승만을 자기네 수장(당수)이 되어달라고 제안을 받는 등, 거족적 영웅의 존경을 받았다. 이를 직접 목도한 미군정장관 하지는 이승만에 대한 이 같은 한국국민들의 대단한 지지를 감지하고 처음에는 적극지원하려 하였다. 한편 그러기에 이승만은 한 정파에만 소속될 수가 없었기에, 좌우정파(한민당 포함)와 희망하는 사회단체 200여개를 포용하는 협의체 성격의 [독립축성중앙협의회(獨促)]를 결성(10월 23일)하여 명실 공히 광복정국에 일직부터 國父다운 지도자로 추앙되어 지도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바로 [독촉]수장의 이름으로 임정의 조속한 귀환과 정식 대한민국정부수립을 역설하면서 동시에 “단연코 신탁통치거부와 완전독립 외 모든 정책반대”라는 ‘국민총의’를 연합국에 결의문으로 전달하였다. 그런데 그 이후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좌파와 중립파들은 탈퇴하고 민족주의 우파가 이승만 박사와 함께 건국의 주류를 형성해 나갔다.

한편 김구주석은 개인자격으로 입국하였으나, 그러나 임정요원과 함께 11월 23일에 환국하면서 “실체는 임정 즉 정통 한국정부의 귀국”이라 자인하였고, 국민들도 임정이 곧 우리정부로 생각하였다. 귀국즉시 박헌영과 여운형이 [인민공화국] 내각참여를 요청하였으나 물론 거절하였다. 그런데 광복 바로 그 해말에 한국에 대해서 그리고 공산주의의 음모에 대해서도 잘 몰랐던 **미·영은 스탈린에 속아, 소위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한국의 5개년 신탁통치안]에 합의**하고 이를 추진하려 하였다.

이[신탁통치문제]에 대해서 지금세상에서도 “잘 모른다”고 하면 그건 우리민족이 아닐 정도로, 그때는 민족전체가 [反託]으로 분기하였다. 그러나 불과 3일 만에 소련 스탈린의 지령에 의해 북한 김일성이를 비롯한 공산주

의자들은 민족의 역사와 염원을 배반하고 오로지 국제공산주의혁명을 위해 일제히 하루아침에 [찬탁]으로 돌아섰다. 그럼에도 여전히 뭘 몰랐던 미국과 미군정은, 한반도에 소위 [좌우합작정부수립정책]을 추진하였는데, 이승만과 김구의 단호한 반대로 무산되었다.

이승만 박사와 김구 선생은 함께 북의 인민정권수립에 대응하여 우선 [전국 비상긴급회의]를 소집하고 [남조선대표民主議院]을 구성하여 토지개혁·여성참정·교육보편화 등 27개항의 신정부시정원칙을 채택도 해 보았다. 그런데 [하지]가 이에 반대하여 온건중도파로 보이는 45명을 관선의원으로 포함하는 [남조선과도立法議院]을 구성(90명)하여 (보기에 따라서는) 좌경정권을 운용하려하였다.

이에 이승만 박사는 김구 선생을 집 지키게 하고 미국으로 급행하여 미국동지들을 규합, [6개항의 한반도정책안]을 국무부에 제출하였는데 내용은, 한시적인 남한과도정부수립, 유엔가입, 대일배상청구, 미소양군동시철군 등이었다. 결과 이승만 박사는 ‘미국당국은 우리의 사정을 잘 이해하면서도 우선은 현 정책(미소공위·좌우합작정부)을 유지하려한다’고 판단하면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이승만 박사가 귀국 전에 미국정책불변의 소식을 듣고, 또 하지가 곧 좌우합작 [남조선과도정부]를 출범시킨다는 정보에 따라, 김구 선생은 이승만 박사가 ‘좀 더 기대리라’고 말림에도 불구하고 [임시정부주권]을 당장선포하자 - 즉 혁명(쿠테타)하자(?) - 고 주장했으나 여의치 않았다. 그러자 임정수석을 사임하고, 이승만이 추대되었는데, 이와 같은 상황을 파악한 하지는, 귀국한 이승만 박사를 군정정책에 반대한다하여 당분간 가택연금으로 대응하였다.

○ 가능한 지역에 우선 대한민국건국과 정부수립

1947년에 동서냉전이 시작 되면서 한반도의 스탈린모략이 감지되자 그제야 미국은 한반도의 정책을 [통일민주주의정부수립]으로 전환하고, 유엔으로 한반도문제를 이전하고, 유엔감시하 인구비례자유총선거를 실시, 통일정부수립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미 성립시킨 북한괴뢰정부를 포기할 수 없는 소련은 북한지역 유엔활동을 거부함으로써 유엔감시가능지역인 남한에서만 5.10선거를 실시하였고, 그리하여 남한 단독정부가 수립되게 되었다. 이것은 선견지명을 가진 이승만 박사와 김구 선생의 당시 한반도전략과 일치하였다.

한편 김구 선생은 환국이후 비록 한 살 차이지만 겸손하게 이승만을 “우남 형님”으로 존경하며 임정정통정부수립과 반탁·반공에 상호적극 협력해왔

다. 그리고 47년 12월까지만 해도, 함께 [민족통일총본부]를 구성하고, “소련의 방해가 제거될 때까지 북한의석을 남겨놓고 선거하는 조건이라면 이승만 박사 단독정부와 내 의견은 같은 것”이라고까지 공언했다.

그러나 48년 초에 막상 소위 [단독정부]절차가 진행되자, 이제 막다른 골목에 들어서게 된 김구 선생은 그래도 [남북통일정권]을 포기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북한 거물 정치간첩 홍명희를 통해 북의 김일성과 김두봉에게 [남북 요인회담] 즉, 4김(김구·김규식·김두봉·김일성)정치협상회의를 갖자고 제의 - 북이 먼저 공작(?) - 하였다. 김구는 환국 직전 이들과의 정치협상연락이 있었던 경험으로 보아 이러한 정치협상의 가능성을 몽상(?)할 수도 있었다고 필자는 거듭 생각한다.

그리하여 북행을 강행한 김구 선생은 임정대표자로서는 물론 광복운동원로의 대접도 받지 못한 것은 물론, 통일에 대한 진지함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공산당정치관에 기만만 당하고 돌아오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2차 김일성의[연석회의] 초대를 거절하면서 ‘북이 맹약을 어기고 단독정부 수립한 것’을 강하게 비난하면서, 서울에서 언젠가는 ‘남북통일협상회의’가 개최될 것을 희망한다고 역설하였다.

이 후 그는 이승만과 함께 종종 경마장을 찾아 함께 즐기기도 하면서 다시 학교를 세우고 정치보다 교육에 관심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불행이도 남북통일의 소원을 이루지 못한채 흉탄에 서거하고 말았다. 이승만은 조사에서, “임정과 해내외광복운동 지도자로 우리국민에 의해 희생됨이 유감이며, 생전에 38선을 건지 못했음도 유감인바, 이에 생존자 모두는 조국광복을 더욱 다짐하며, 이에 한 줄기 눈물로 당신을 국민장으로 보내니 영민하시길 기원한다”고 애도하였다.

○. 대한민국건국과 정부수립 그리고 이승만대통령의 통일이념

1948년8월 15일, 광복 3주년에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에 의해 대한민족이 그리던 [대한민국정부수립·건국]이 드디어 선포되었고, 동시에 그의 소망과 국민의 여망에 따라 제정된 헌법과 그의 초기건국철학에 의해, ‘반공자유민주국가발전’, ‘자립산업경제건설’, ‘토지개혁’, ‘백년지대계의 국민의무교육’, ‘자주국방’을 국가(통치)목표로 선포하였다. 그리하여 [국민대동단결]정치를 지향하여, 과거골수공산주의자인 조봉암까지도 포함하는 거국내각을 구성하였다. 다만, 한때 찬탁에 기울었던 국내과정당인 [한민당]에는 감투를 특배하지 않았기에 그 이후 (심지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들은 완강히 이정권을 반대하고 비판해 왔다.

한편 즉각 반민특위를 통해 민족반역자 560명을 색출하여 특검에 송치하고 그 중 221명을 기소, 38명의 주범을 재판함으로서 국민들의 대일감정을 일단 진정시켰다. 그런데, 당시 공산주의자는 물론 임정요원들도 국내잔류파와 한민당요원, 예컨대 송진우 장덕수 김성수 등까지도 친일파로 단죄할 것을 주장했으나, 국가초기 국민전체의 화해·화합·협력·단결이 우선 필수적이었고, 또 당장 극렬한 남노당의 반란행위진압과 국가질서확립을 위한 국가치안역량확보가 급선무였기에, 적절한 한도를 고심하여 그 선을 일단 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만일에 더 이상 여론에 끌렸다면, 아마도 예를 들어 당시의 한민당이 거세되고 오늘날의 주류야당은 모습을 달리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 북의 南侵赤亂과 자유민주주의 북진통일의지 과시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5천년 유사 이래 자유자치민주주의공화국으로 산업·복지국가로 향해 국가가 막 안정 되 가려는 때 북의 김일성은 [南侵赤亂]을 야기하였다. 그러나 이루 형언할 수 없는 이 민족적 대란을, 그러나 이승만대통령의 국제외교감각과 단호하고도 과감한 리더십으로 국민전체가 총체적 단결력을 발휘하여 극복해 낼 수 있었다. 당시, 이승만대통령의 반공 리더십과 우리국민의 반공투쟁사상이 뭉쳐 있었기에 침략자에게 ‘반공의지의 한주먹’을 날릴 수 있었고, 그래서 미국을 비롯한 유엔군이 주저 없이 참전할 수 있었다.

또한 부산교두보의 낙동강전선에서 9월4~8일 어간에 상황이 불리해져 부산이 위협을 받게 되자 유엔군은 한반도방어를 포기하고 차후 대책을 강구하려하였는데, 정일권총참모총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이승만은 대노하고, “미군 떠나도 좋다, 우리는 죽음으로 싸울 것”이라고 전하고, 즉시 적의 포사정내에 있는 영천전장으로 나가서 대소 지휘관들을 직접 독려하고 참호속의 병사들을 격려하였다. 이는 옛날식 표현으로는 [親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리하여 우리국군이 적의 9월 마지막공세저지에 성공함으로서 9.15의 인천상륙작전과 9.28서울수복으로 연결되는 역사적 반격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중공군개입으로 1.4후퇴에까지 이르자 유엔군은 화력을 포함 압도적인 군사력을 증강하여 다시 반격, 전선이 38선상에 다시 도달하였는데, 이때쯤에 영국·미국국민들의 염전분위기로 말미암아 휴전교섭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승만과 우리 국민은,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즉시 북진통일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희생감소를 명분으로 하는 종전을 거부하고, 이 기회에 수단과 방법을 다한 한반도 우리민족통일을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그래서 반공포로

를 석방하며, 국민총력데모를 집행하며, 휴전협상과 협정서명을 거부하며, 심지어는 국군을 증강하여 [단독복진]을 주장하는 등 온갖 노력을 다 했으나 군사작전통제권을 가지지 못해 뜻을 이룰 수가 없었다. 대신 미국이 한국방위를 책임지겠다는 [한·미방위조약]이 체결되고 말았다. 생각하건데 만일에 그때 복진통일이 이뤄졌다면 지금쯤은 최소한도 일본 못지않은 선진국이 되어 있을 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동안 한때 미국은, 휴전회담을 반대하고 기회만 있으면 복진을 노림 - 이때부터 오늘날 까지도 미국은 한국의 단독복진을 경계해 오고 있다 - 으로서 미국전략정책에 장애가 되고 있는 이승만대통령의 차기집권을 좌절시키기 위해, 장면 등 유력한 정치가들과 야당을 지원하여 국회세력을 장악하고, 1952년 조기에 야당에 의한 내각제 개헌안을 추진함으로써, 5월국회에서 장면을 대통령으로 하는 친미정권을 창출하려하였다. 만일에 여의치 않으면, 심지어 한국군 일부 수뇌부에도 영향력을 행사하여 이승만 제거 군사쿠데타 즉, 이승만대통령을 “체포·억류하고 미군정을 실시”하려는 계획(The Plan Ever Ready)도 논의했다. 아마도 당시 이종찬 참모총장 - 현재는 '참군인'으로 잘 알려져 있는 - 이 이승만대통령의 계엄요청을 거부한 것도 이러한 미국 정치공작의 일환으로 추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전 국민적인 지지를 받고 집권 중이던 이승만은 전쟁동안 비록 국민방위군사건과 거창사건 등으로 상당한 정치적 손상을 입긴 하였으나 여전히 국민들로부터는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었다. 그러했기에 당시 나이 77세의 이승만은 38선을 없애고 평화적이든 무력복진이든 통일을 위해, 미국을 상대로 모든 투쟁을 다할 수 있는 지도자는 이 시점에서 자기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결과적으로 소위 ‘牛意·馬意’가 동원된 [부산정치파동]을 겪으면서 정치난국을 정면 돌파하였던 것이다. 그러했기에 이제는 우리 국민들도 이 사건을 긍정적으로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신생 대한민국역사에서 지울 수 없는 자유당의 부정부패와 3.15부정선거는 마침내 4.19혁명을 유발하고, 그 결과 유혈사태가 빚어지자 이승만 대통령은 이모든 사태에 책임을 지고 주저 없이 하였다. 그런데 4.19혁명의 주요 목적은 이승만의 타도(11.3%)나 국가체제의 변화에 있었다기 보다 자유당반대(84.5%)였기에, 이승만대통령이 경무대에서 이화장에 이르기까지의 해야 연도에는 희생을 무릅쓰고 혁명에 성공한 그 학생들과 시민들조차도 줄지어 박수로 환송했으며, 심지어는 혁명에 앞장섰던 경향신문도 사설을 통해, “노 박사의 여생에 신의 가호가 있기를 마지막 빌어마지아니한다”고 했다. 그만큼 이승만대통령은 그래도 국민의 존경을 받고 있었던 것이다.

○ 이승만대통령의 대일안보전략(사상)·정책

이승만은 정부수립후, 광복국가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안으로는 반민특위를 구성하여 반민족행위자를 색출, 처벌하여 국민들의 대일감정을 진정시키는 한편 사회전반에 걸친 왜색일소운동을 전개하여 문화적 지배요소를 척결하였다. 동시에 밖으로는 대일전후처리문제에 강경하고도 단호하게 접근해 갔다.

전쟁 중이던 1951년 1월에 이승만은 '맥아더라인'의 해제에 대응하여, 이후 유명해진 '평화선'(일명 이승만 라인)을 선포, 일본의 직접적인 한반도 영역진출과 그 영향을 억지하였다. 이는 우리의 영해선이자 오늘날의 EEZ(배타적 경제수역) 개념의 선견이었던바, 이에 대해 일본이 도발하자 미국이 '클라크 라인'(맥아더 라인과 유사)을, 군사적 목적을 이유로, 선포하여 한국을 암묵리에 지원하였다.

또한 전전부터 주장한바 있고, 1949년에 신문기자회담에서 시사한 바도 있는 [대마도반환] 문제에 대해서, 1951년 4월에는 한국전쟁 중임에도, 미국이 일본재무장을 위해 일본독립문제를 논의하게 되자, 이승만은 조기 일본부흥을 견제하려는 의미도 포함하여, [대마도반환]을 요구하는 정식공문을 미국국무성에 보내기도 하는 등 지대한 관심을 표명하였다.

그런데, 1951년 9월에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체결되고 일본을 주권회복 시키면서 미국은 일본의 입지를 강화하고자 [한일국교정상화회담]을 종용해 왔다. 그리하여 한·일간 '청구권과 어업권에 대한 협상'이라는 이름의 회담이 추진되었다.

1951년 10월 21일부터 시작된 회담은 양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려 다음해에 중단되고, 2차 회담은 1953년 4월 15일 열렸으나 평화선문제, 재일교포 강제퇴거문제 등으로 다시 결렬됐다. 이어 그해 10월 6일부터 제3차 회담이 재개됐는데 일본측 수석대표 '구보다'가 소위 [구보다 망언]으로 한국대표를 제압하려하였다. 그는 "일본의 36년간의 한국 통치는 한국인에게 유익했으며, 한반도에 일본이 남기고 간 일본인소유재산이 85%로 이를 일본에 반환해야하며 그동안 사용대가의 배상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는 분명 과거 한반도의 강제점령과 한민족의 말살을 자행하였던 사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은 채, 오히려 강탈과 강제 노역으로 착취한 한반도 재산을 자기들 재산이라 우기며 사용료까지도 보태어 내라는 등, 그야말로 여전히 점령자로서 군림하려는 오만불손한 언동을 감히 자행하였다.

이에 이승만대통령은 물론 한국국민들의 대일감정이 격앙돼 회담은 중단되었다. 특히 이승만대통령은 대일감정을 삭이며 오히려 이 일본의 야욕을 反日戰略에 대한 대미카드로 활용하였다. 이 망언으로 말미암아 한국은 일본

에 대하여 또 다시 장기간에 걸친 양금이 형성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한국민은 이후 일본의 불성실한 사과에 대해 오늘날(광복 70주년)까지도 일본의 진정성을 의심하면서 참된 사죄받기를 원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 사실은 결코 이승만의 개인적 반일감정으로서가 아니라 일치된 국민적 반일감정으로 다시 습—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 국가경제부흥정책과 농지혁명

이승만은 일찍이 1990년대 감옥에서 집필한 저서 [독립정신]을 통해서 주장했다. "경제적 이익이 외국인들에게 뺏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갖가지 물건 만드는 법을 배워 외국 사람들이 만들어 내는 것을 우리도 만들어 내야 할 것이며, 외국물건을 사오지 말고 만든 물건을 수출해야한다. 그 결과 외국으로부터 재물이 들어오고 경제가 발달되어 국민생활에 큰 변화가 나타나고 모든 것이 풍요롭게 될 것이다."라고. 이승만대통령은 1951년 11월에 "배고픈 사람에게 생선을 주면 한 끼 해결은 가능하나, 낚싯대를 주면 언제나 먹을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전후복구기본전략(사상)을 가지고, '가능한 한 한국자원과 인력을 사용하여, 주택복구, 석탄 및 중석생산, 발전소건설, 방직공장 및 신발공장 복구, 비료공장, 나일론공장, 시멘트공장, 유리공장, 통조림공장 신설, 그리고 소규모 조선소건설을 계획하였다.

1954년에 미국을 다녀 온 이승만은 본격적으로 전후 복구에 나서서 국군(특히 당시로서는 최신으로 현대화 된 공병부대)을 건설역군으로 최대로 활용하였다. 때마침 1955년부터 잉여농산물판매대금에 의한 원조(미공법 제 480호)가 시작되었는데 일정액의 군수소요를 제외한 부분을 한국정부가 활용(1/3은 생활안정, 2/3은 공장재건 및 신축 등)할 수 있도록 교섭하였으나, 원조자금운용 당국은 한때 '원조중단' - 실제로 유류공급중단도 하고 - 이라는 위협으로 응대하였다. 그럼에도 갈등을 극복하면서 이승만대통령은 부흥부를 설치하고 인플레이 억제 와 재정안정정책을 추진하였다. 1959년 4월에는 경제개발 3개년계획을 수립하였으나 4.19혁명으로 시행하지 못하였다가, 박정희장군의 군사정부가 이 계획을 승계하였다.

여하 간에 1954년부터 59년에 이르기까지 연평균 4.4%성장으로 타 후진국보다 높았고, 공업부문성장이 10.8%로서 이승만의 산업입국고집(?)은 결과적으로 미래 [한강의 기적]을 낳는 기반을 조성하였다고 평가된다. 1959년 8월 3일자 뉴스위크지는, "....., 한국은 휴전선을 마주하고도 전쟁의 잔해를 딛고 일어나 대단한 경제성과를 이뤄간다. 서울은 전쟁피해를 대부분 복구했다. 산업생산은 지난 4년 동안 70% 가까이 증가했다. 농업생산은 그보다 훨씬 적지만 그래도 2년 연속 풍작이다. 1인당 소득은 대략 미화 100 \$로 추산된다. 자유아시아국가들 가운데 중간수준이다. 1957년 중반

이후로 물가도 상당부분 잡혔다. 은행예금도 크게 높아졌다. 세수도 휴전협정이 조인된 1953년보다 9배 성장했다.....”라고, 낙관적으로 보도했다.

이승만대통령은 경자유전과 개인소유를 인정하는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반만년의 악습 된 왕조정치와 그들의 토지정책을 가장 먼저 개혁, 아니 혁명하였다. 더구나 46년에 남북의 합의도 없이 북한에서만 느닷없이 '무상몰수 무상분배'라는 농지혁명이 집행되자 이승만은 남한에서는 '유상몰수, 유상분배'의 농지개혁을 실천하였다. 정부수립 후 국회개원식에서 이승만은 "....., 우리나라 안보방위를 위한 국방군 설치와 도탄에 빠진 국민을 구제하는 일이 급선무요, 우리는 미곡과 기타상품의 가격을 규제하고,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게 토지개혁을 실시할 것이며, 법에 의한 대로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할 것입니다."라고 연설하여 토지개혁의 의지를 제헌헌법 제86조에 명시하고, 농지개혁법을 당시 지주와 상공인계열의 한민당과 민국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입법(50.3), 공산주의자 조봉암 농림장관에게 농지혁명을 실행시켰던 것이다. 이러한 못한 베트남은 공산화되고, 한때 선진국이든 필리핀은 지금도 '토지·지주·소작농' 때문에 발전은 정지당하고 내란이 계속되고 있다.

○ 이승만대통령의 교육철학과 정책

광복 당시 일제의 교육차별로, 교육받은 사람은 14%에 불과했고, 그나마 중학이상 졸업자는 25000명인데다 문맹률은 80%의 문맹국이 되어 있었다. 그러기에 이승만대통령은 제헌헌법 16조에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적어도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무상으로 한다”고 명시하여 백년지대계로 민주주의대한민국에 걸맞게 최우선으로 국민에 대한 교육부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건국 10년도 되기 전에, 세계유례가 드물게, 초등학교는 2800/136만명에서 4600개/360만명으로, 중학교는 10배·고등학교는 3.1배, 대학교는 12배로 늘어났으며, 당시 특히 초등학교는 지역문화중심이 되기도 하였고, 문맹률은 80%에서 22.1%로 감소했다. 심지어 6.25赤亂시에도 이승만 대통령은 [문맹퇴치계획]을 이행하였고, 특히 한사람의 장정도 더 필요한 때인데도 '학생은 병력면제'의 영단을 내림으로서, 국내면학은 물론 해외유학이 성행하였는데, 물론 '牛骨塔'이라는 별명도 회자되었지만, 결과적으로 이들이 박정희시대에 한국부흥의 유력한 자원이 되었다. 그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도 국가발전의 동량이 되었으며, 특히 오늘날 미국 대통령 오바마가 기회 있을 때마다 칭찬하는 한국의 교육제도와 교육열이 그때부터 시작되었음도 우리가 익히 잘 아는바와 같다.

○. 결 론

최근 어떤 유력중앙일간지의 최고가 광고란에, 풍산계열 화동양행이 발행하고 반관기관인 국민은행과 농협이 총판하고, 엄연히 국가기관인 조폐공사가 제조한 소위 [광복 70년 기념메달]이 게재되었는데, 금메달은 아예 인물 없이 앞면;70/뒷면; 2015와 나무모양으로 하고, 은메달은 100인 시리즈로 하면서 대표 위인 4인을 유관순·김구·김좌진·안중근으로 선보이면서 아예 이승만 박사는 100대 광복인물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또 하나, 이 또한 한국 굴지의 한 중앙일간지가 모 전문여론조사기관의 [광복 70주년기념 여론조사]라면서, ‘나라를 잘 이끈 대통령의 2위로 노무현이 24%고,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황당하게도 겨우 3%로 꼴찌를 면했다고 보도함으로서 은연중 고의(?)로 못한 지도자로 낙인찍으려하고 있다. 또 하나, 대한민국국록을 받는 광역시장되는 한 고위공무원과 한 서울대학교수가 입을 모아 [건국67주년]을 “헌법위반이요, 남한을 장악하고 지배한 친일세력과 이승만을 옹호하기 위한 음모”라고 하였다. 이들은 부디 한번이라도 임정이 공포한 [대한민국건국강령(41.11.25)] - [광복기→ 건국기→건국완성기]를 읽어주시기를 바란다. 여하간에 이들은 비록 소수이고 또한 개념 부족한 정치가나 학자 또는 기업이나 신문사가 잘못 생각한 자기과시나 영업행위일 수도 있겠으나, 달리 보면 특히 좌파 교육자들에 의해 잘 못 교육된 세대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자학사관에서, 또는 고의적으로 남남갈등을 선동하려는 종북주의자들에 교도당한 식자들의 사회현상 같기도 하여 심히 의심스럽고 걱정스럽기도 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광복 [70주년·건국 67주년]을 맞이하여, 언론에서도 [건국대통령도 없는 지폐]라던가, [건국의 아버지홀대한 나라치고 끝이 좋은 경우 난 못 봤소] 라고 말하기 시작하고 있고, 정치계의 어느 유력대선후보는 ‘이승만 박사와 김구선생’의 업적을 함께 기리며, 두 분을 지금이라도 國父로 위대하게 모시자 하고 있다. 정말로 반갑고도 바람직한 일이다.

國父를 영어로 Founding Father/Fathers'라고도 쓰고 있듯이, 경우에 따라서는 그 나라의 건국에 기여하고, 그들이 주장하고 창조한 전통이 그날과 오늘 그리고 영구히 그 민족과 인류생활에 보편적 원리가 된 것이라면, 두 사람도 또는 여러 사람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실제로 예를 들어 미국국민들은 'Founding Fathers of U.S.A.' 라고 하여 워싱턴·제퍼슨·프랭클린·아담스미스·메디슨·해밀턴·몬로 등 여러 명을 모시고, 국가기념비는 물론 교과서에 역사로 남겨 교육하며, 일상사용하는 화폐와 동전에도 새겨서 기념하고 있지 않은가.

사실이 그러하기에, 우리는 한 사람의 광복·건국지사도 잊지 말고 끝까지

찾아 기려야함이 마땅한바와 같이 동시에, 대한민국건국에 불멸의 위훈을 남기신 임정수반 백범 김구선생과, 대한민국건국에 평생을 이바지하고 민족총의로 초대대통령이 된 이승만 박사 두 분 또한, 우선 우리 대한민국의 광복과 건국을 대표하는 國父로, 늦었지만은 이제라도 모시는 것이, 그래도 이분들의 지도력 덕분에 이만큼이라도 잘살고 있는 오늘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마땅한 도리가 아니겠는가.

그와 함께 우리는 또한 이 두 분 國父님들을 모시고 광복운동과 대한민국 건국투쟁 그 때와 같이, 다시 한 번 우리 민족 모두의 통합된 단결력으로 새로운 對日安保戰線을 형성해 나가야 하지 않겠는가.

2015.8.15에 한국국가안보전략사상사연구회 대표 문영일
(ikonsstory.com)